

“보시행 속에 한국불교 미래 있어”...

무원 스님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 1979년 대총 대중사를 은사로 구인사서 출가한 스님은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주지와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원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올 7월 15일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옛 작은이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8년 부산지역의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종교를 넘어 북녘동포를 도와오던 시민 단체다. 특히, 평양 중심의 지원서 벗어나 자강도, 함경도의 산간 지역이나 오지 등 지원이 미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결성됐다. 만들어진 이후 2010년에 들어와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평양태양광발전소) 건립,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약무 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 남포·전북 우리민족복지공장 준공, 북녘어린이 지원 사업, 재해긴급구호물자 지원, 헌책수거재활용사업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의 화려한 불교계 이력 때문에 중책을 맡겨졌다. 무원 스님은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개성 영통사 성지 순례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돕기 사업에 관해서는 국내서 손꼽히는 전문가와 활동가중 하나다. 1979년 대총 대중사를 은사로 구인사서 출가한 스님은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주지와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내자 총무부장으로 2012년 12월까지 총무원장 대행체제를 이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직접 발로 뛰는 능동적 복지 마인드 필요

무원 스님의 별명은 포대화상(包袋和尚)이다. 넉넉한 외모에 다문화 활동에도 열심인 모습이 자비 실천을 상징하는 중국의 포대화상과 닮았기 때문이다. 특히 넉넉한 너털 웃음은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다. 무원 스님의 본격적인 다문화 사업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 다문화 사찰인 명락사 주지 시절 낯선 이국땅서 파경을 맞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인 '명락빌리지'를 개원해 다문화 가정 지원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겨울 엄동설한 추위에 아끼 귀저기를 시주 받으러 다닌 일화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훈훈한 감동을 전해 준다. 당시 무원 스님은 다문화 가정 중에서 혼자 사는 미혼모들을 모아서 도와 주는 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산모와 어린아이들의 귀저기가 부족해 아끼 귀저기를 시주 받으러 다녔다. 이를 본 신도들은 남들이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작은 귀저기 하나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무원 스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깨우침을 받았다고 한다.

무원스님은 "사실만 화려하게 만드는 외형 중심의 복지는 생명이 짧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작에 반영하는 능동적인 복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쓰는 법이 곧 보시행을 베푸는 것이고, 보시행 속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작은 것 부터라도 삶에서 보시행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원 스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또 있다. 바로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이다.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 건인사 역할

2002년 천태종 사회부장 소임을 맡아 영통사 남북합작 복원, 성지순례와 남북공동법회, 개성관광 등 남북교류의 한 획을 긋는 데도 일조했다.

“아마 영통사 복원 때문에 개성을 방문한 것도 80여회가 넘는 것 같습니다. 육로가 열리기 전에는 주로 실무자들과 중국 북경서 만났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통사 복원에 사용되는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북측은 인천서 남포로 해로를 요청했지만, 제가 가까운 육로길을 놔두고 왜 굳이 먼 곳으로 돌아가냐고 버텼지요. 수 개월간의 설득 끝에 가까스로 관문점을 통해 물자를 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 곡절 끝에 영통사는 3년만에 복원을 마쳤다. 이어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무원

된 곳을 순회하며 음악을 통해 이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다문화다종교 평화운동도 선포해 지난해부터 무지개색깔로 된 평화염주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앞으로 12월 22일인 동지에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동지팍죽 나눔행사'도 대대적으로 펼쳐 불교문화행사로 정착 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개방적인 도시인 부산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종교인과 힘을 합쳐 불교 도시 부산에서 문화간, 종교간 화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원 스님은 이같은 취임사서 밝힌 것처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포교를 펼치고 있다.

삼광사 주지 취임하며 베트남 법회 봉행

삼광사에서는 또한 지난 달 베트남 근로자와 결혼 이주인 등 300여 명이 모여 법회가 열렸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 지역 언론과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부산의 베트남 불자들이 그동안 말과 문화가 달라 제대로 된 법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뤄진 법회였다. 지난 7월부터 마땅한 환경과 장소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봉행했다.

“다문화 사찰”로서의 면모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과의 공존이 중요해지고, 또 불교계도 다문화 가정을 적극 지원·포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 중심에 삼광사가 있다. 삼광사는 앞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회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삼광사의 이 같은 행보는 무원 스님이 주지로 오면서 본격화됐다. 무원 스님은 서울 명락사 주지 시절에 명락사를 국내 첫 다문화 사찰로 표방,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불자들을 진행했다. 스님은 지난해 초 삼광사로 온 이후로도 “다종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 “다문화가정 초청 한문예절문화 강좌” “글로벌 친구 인연 맺기” “스리랑카 승가학교 학인 스님 템플스테이” 등 다문화 가정 불자 초청 행사를 연이어 여는 한편, ‘부산 다문화 실태와 결혼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포럼’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삼광사는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청소년 문화캠프, 세계전통 음식 어울림 문화 한마당도 열었다.

무원 스님은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화두를 통해 어떻게 화합하고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를 풀어나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정책 복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 불국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문화 사업에 팔을 걷어 부치는 이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원 스님의 다문화 포교는 사실 2009년 국내 최초 ‘다문화 사찰’인 천태종 명락사의 주지로 오면서 본격화 됐다. 스님은 다문화 가정, 특히 결혼이주인 중 모자간정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대북사업 개척

2005년 영통사 낙성 실무 책임 맡아

개성 총 80여회 드나들며 북측과 조율

수개월 설득 끝에 물자 수송 육로로

다문화 포교에 다방면으로 활동

2009년 이주여성쉼터 명락빌리지 개원

아끼 귀저기 시주받으러 직접 뛰어다녀

올해 삼광사서 베트남 법회 정기적 봉행

부산 삼광사 주지로 지역 포교에 헌신

다문화다종교 평화운동...염주 나눠줘

청소년 인성교육센터 건립, 월 1회 교육

내년 1월 5백명 대상 힐링열차 운영

스님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족간의 정을 앞세워 순리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해 개성 성지순례도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소통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불자 신도 36만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사찰인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은 24시간이 모자라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 포교사인 무원 스님은 지난해 2월 1일 삼광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더욱더 바빠졌다. 취임한지 2년이 채 안됐는데도 청소년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비행 청소년 인성 강좌를 열고 있으며, 섹스폰 음악단을 구성해 병원, 양로원 등 소외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1999
아제여행사
AJE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인도·네팔 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중앙 승가대 교수 보각스님
출발일 : 01월 21일 ~ 02월 01일
특전
1.보각스님의 명쾌한 불교성지설명 및 법문
2.성지마다 순례자를 위한 축원기도
3.성도재일에 성불지 부다가야 보리수에서 기도
출발일: 3월 9일

출발일: 3월 9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만달레이
출발일: 1월 5일
출: 3월 29일 구회산·황산·보타산 순례 6일
지장보살(99m),천하비경 황산,남해관음상
출: 3월 9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99만
출: 3월 11일 화엄5조(두손-지엄-법장-정랑국사-규봉종일)
서안,태원,오대산(문수보살)6일
출: 5월 29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사,사가체,마나사르바호수,수미산,구계왕국
출: 6월 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출발가동·월/수/금
진정한 티벳수행,만여문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 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텐-테를지
출: 9월 초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출발일 · 3월 9일 **중남미 7개국 17일**
과대문화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곳
신비의대륙
출발일
3월 24일/4월 21일/5월 28일/6월 23일
7월 7일/8월 18일/9월 1일

출발일
5월 7일/28일/6월 21일/7월 27일/8월 30일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티베트”
출발일
3월 24일/4월 21일/5월 28일/6월 23일
7월 7일/8월 18일/9월 1일
이도대사님 보로부두르대탐
화엄경 성지
임법계종과 선계종자 구별이야기
출발일
3월 24일/4월 21일/5월 28일/6월 23일
7월 7일/8월 18일/9월 1일

출발일 3월 23일
히말라야 고요왕국 부탄
행복지수 1위!
출발일
3월 24일/4월 21일/5월 28일
6월 23일/7월 7일/8월 18일/9월 1일
러키,그리스 9일
출발일 3월 23일
이스탄불,카파도키아,파묵칼레
아테네,미오스섬

출발일: 3월 9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만달레이
출발일: 1월 5일
출: 3월 29일 구회산·황산·보타산 순례 6일
지장보살(99m),천하비경 황산,남해관음상
출: 3월 9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99만
출: 3월 11일 화엄5조(두손-지엄-법장-정랑국사-규봉종일)
서안,태원,오대산(문수보살)6일
출: 5월 29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사,사가체,마나사르바호수,수미산,구계왕국
출: 6월 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출발가동·월/수/금
진정한 티벳수행,만여문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 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텐-테를지
출: 9월 초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다문화 포교는 평생의 서원



한국다문화센터 대표인 무원 스님이 전국다문화합창제에서 수상자들과 무대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며 웃고 있다.



2005년 개성 영동사 낙성법회 모습



삼광사 주지 취임이후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무원 스님



동티모르 축구단을 격려하는 무원 스님

첫 다문화母子 자립공간 '명락빌리지'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명락빌리지'이다. 명락사 바로 곁에 위치한 명락빌리지는 국내 최초 다문화모자가정을 위한 자립 공간으로, 건립 당시 중국, 몽골, 베트남인 등 9가구 16명의 가족이 생활했다. 이들은 모두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 등으로 혼자 뒷마당을 키우는 편모 가정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지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몫이지요."

스님은 개관 당시 명락빌리지가 '수용 공간'이 아닌 '자립 공간'임을 강조했다. 이곳에서는 3개월 또는 반년의 시간을 주고 한국문화와 적응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등도 알선하며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완전한 한국인 가정'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출발한 것이다. 예산은 모두 '다문화가족돕기1만등불발하기' 같은 행사로 신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인데, 여기에는 일반 신자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줬다는 스님의 생각이 깔려 있다.

스님은 당시 다문화가정을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라고 말했다. 어디서나 이방인 취급을 받고 포용보다는 규제의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글로벌 시대의 견인차'가 될 자질이 많습니다. 그 가능성을 높이 사기에 복지 위한 역량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스님의 이런 보시행은 오래됐다. 명락사 주지 이전인 인천 황룡사에서는 새터민 돕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복지 사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스님은 "수행의 근본이 바로 회생·봉사·헌신이기에"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수행은 깨달음을 구하는 행위지만, 그 깨달음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깨달음을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스님은 바로 소외된 자들에게 내미는 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회생·봉사·헌신이 바로 수행의 근본" 스님의 이런 행보는 사실 출가 시절의 인연과 관계가 깊다. 17세, 스님의 출가는 빨랐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삶과 병들, 죽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절로 들어갔다. 3년간 오대산 일대 절에서 수행을 했고, 20살에 구인사로 들어가 남대중 대중사를 모시고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때 스승에게 받아 평생을 들고 온 화두가 '마음 잘 쓰는 것이 도 잘 닦는 것'이란 문구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잘 쓰고 있는가를 견주고 있지요."

그 마음 쓰는 방법이라는 게 다름아니라 보시행을 베푸는 것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젊은 나이에 총무원 일을 맡으면서부터 그는 다짐대로 이 방편의 일을 계속했다. '한

국다문화센터 정책자문단장',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대표' 등 이래저래 걸친 직함만도 셀 수 없다. 종교·이념을 떠나서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는 복지, 스님은 "그런 보시행 속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했다. "너무 잘하려는 것도 탐심(貪心)"이라고 하지만 스님은 지나온 발걸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음 쓰는 법'을 고민하며 용맹정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황룡사, 경주 청강사 등 그가 세운 10여 개의 절과 마찬가지로, 역시 지나가면 그만인 곳이지만 지금 삼광사에서도 꿈을 키우고 있다. 바로 삼광사를 명락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찰'로 만든다는 것이다.

무원 스님은 "한 집안에서도 종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이제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종교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을 우리 불교가 세계인으로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시대에 모두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문화 전법사 무원 스님의 당부다.

스님은 내년 1월에 색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삼광사 어르신 신도 5백여명을 기차로 모셔서 태백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일명 '힐링열차'다. 그 곳에서 고구마와 감자도 먹으며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되새겨 줄 생각이다. 스님은 "설교열차보다 더 즐거운 힐링열차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지켜봐주세요"라며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짓는다. 글=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전법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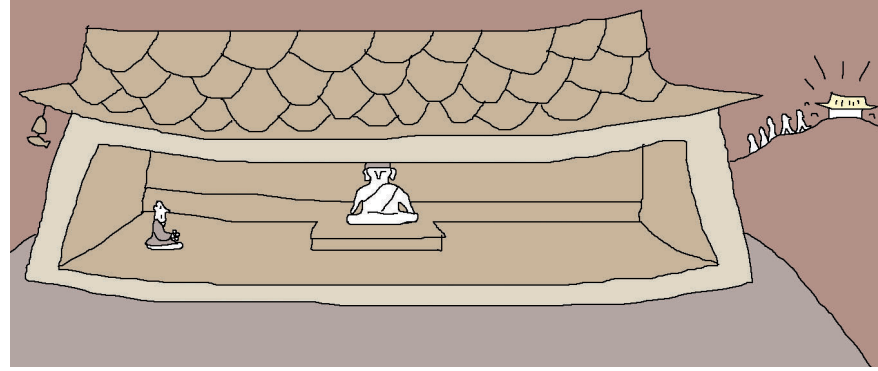
주인이 따로 있다

대만의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성운대사의 "월력을 세우면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모이면 불사를 이룬다"는 법어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이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이런 힘이 신앙과 만나면 몇 배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저 둔황의 석굴이나 용문석굴의 불가사의한 조각들은 불심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옛 사람의 표현에 '물각유주(物各有主)'라는 말이 있다.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인데 집터나 절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터라도 누구는 자리 잡고 살고, 누구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주인을 만나면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이곳의 절도 내가 옮겨오기 전에는 그 지사(志士)가 살았으므로 그 어떤 궁궐보다 훌륭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사원도 마찬가지다. 법당이 크고 장엄하여도 가르침을 배우거나 법을 구하는 자의 방편이 없다면 오히려 세간 법당의 암자보다 못할 것이다. 절은 그럴듯한데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인 없는 집이나 똑 같다. 저 산중의 작은 암자라 하더라도 진리를 구하는 이가 몰린다면 그 절은 단연코 명찰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그렇지만 저 시정(市井)의 넓고 웅장한 절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물어보는 자가 없다면 그 절은 명찰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나의 명당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조왕 시절에 새 궁궐이 완공되었을



그림·박구원

저 잡초만 무성한 묵정밭이었는데 주인을 만나서 조흔한 도량으로 변모하였다. 집이든, 땅이든 주인이 따로 있긴 있으나, 당대(唐代)의 시인 유우석은 <누실명(陋室銘)>에서 '산이 높다고 좋은 산이 아니다. 그 산에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다. 물이 깊다고 좋은 호수가 아니다. 그 물에 용이 살아야 신령한 호수다.' 라고 했는데 그의 말에 동의한다.

비록 비좁고 초라한 곳이라도 그 곳에 빛나는 인물이 살고 있으면 결코 누실(陋室)이 아니라는 뜻. '길인주처시명당(吉人住處是明堂)'이라는 글처럼, 길지나 명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곳이 명산이 되고 명찰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그 터에 머물러 사는 주인들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도연명의 시에 용슬재(容膝齋)라는 정자가 등장하는데 예찬(倪瓚)이라는 사람이 그 풍경을 묘사한 <용슬재도(容膝齋圖)>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무릎이 닿더라도 용납되는 집'이란 어떤 곳인가. 이것은 무릎이 부대낄 정도로 집이 좁지만 손발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은자(隱者)의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런 집은 비록 작고 누추하더라도 눈빛이 행행한

때 백제 사람들이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묵서(墨書)를 남겼다. 그 옛날 백제인들이 추구했던 건축의 기준은 이러했다는데, 집을 지을 때마다 이 미학의 공식을 갖추기가 참 어렵다. 너무 규모가 거대하기만 하면 오히려 밋밋한 멋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작은 것만 추구하면 장중함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건물은 기교를 줄여야 하고 작은 건물은 소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지나치지 않는 고졸한 조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을 새로 지을 때 백제인들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정성을 다 했는데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앞으로 절의 품위를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가난하고 맑은 절'이 되고자 했던 처음의 창건 정신이 변함없는지 점검해보게 된다. 우리 모두가 절제와 가난의 미덕을 잊고 사는 시대라서 더욱 가난한 절이 되기를 발원했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동진기획·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한권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내지: 한지 108장 •표지: 레저크지 올셋 4"
 •제본: 한자본 실제본 •크기: 435mm×300mm

한지입춘대길(大/2도)

한지삼재물이 신년맞이기도부

한지삼재물이 신년맞이기도부

금띠지 등표

정가 1,000원
 200매 이상 @800원
 규격: 3.5cm×70cm

만사대길·소원성취·학업성취
 사업성취·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태위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한권 4,000원(50장 이상) 정가 5,000원

• 68cm×195cm(맥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